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치인, 특히 통치자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과학기술 발전에 통치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많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치자의 과학기술에 대한 역할에 대해 말할 때 프랑스의 드골은 단골 메뉴다.

드골은 1958년 제5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후 곧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자들을 모아 국가발전의 틀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당시 드골이 펼친 과학기술 정책에 힘입어 오늘 우주항공·원자력·해양·에너지 등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가 과학기술면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드골 못지 않게 나폴레옹의 역할이 있었다. 나폴레옹은 수학과 과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통치자였다. 그는 “수학이 흥하는 나라는 흥하고 수학이 망하는 나라는 망한다”고 말할 정도로 과학에 대해

관심이 컸다. 나폴레옹은 1798년 이집트 원정에 나섰을 때도 전쟁과 무관한 수학자와 천문·생물·기하·광물·화학·고학자는 물론 교량기사·건축가·토목기사 등을 대동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바벨루크왕조의 독재를 종식시키고 관개(灌溉)와 농업을 발전시키며 지중해와 아라비아 해안 간의 안전한 정규 통상로(通商路)를 열고 이집트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근대문명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과학의 지속적인 응용 없이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믿었다.

미국의 경우 제35대 대통령을 지낸 케네디는 프랑스의 드골 못지 않게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케네디는 1961년 대통령에 취임하자 매서추세츠공대 교수 제롬 위스너를 우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군사위성의 민간 활용과 국제협력 등 우주개발계획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을 쏟아 부었다. 미국은 케네디의 ‘인간 달 정복을 60년대 말까지 달성한다’는 기치로 우주경쟁에서 소련을 앞질러 단연 우위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고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제34대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1953~61년)의 ‘고속도로 건설계획’, 37대 닉슨(1969~74년)의 ‘암 정책계획’, 40대 레이건(1981~89년)의 ‘별들의 전쟁계획’도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독일이 세계 무대에 다시 우뚝 서게된 것도 정치 지도자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과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비스마르크 이후 독일의 위대한 정치가 아데나우어, 경제 거적의 주역 에르하르트, 독일 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콜수상 등은 독일을 오늘의 과학기술 대국으로 이끈 정치인들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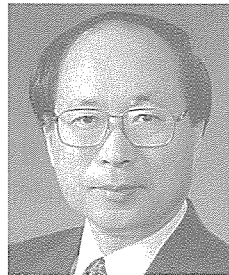
영국의 대처수상, 일본의 나카소네수상도 그 중의 한 정치인이다. 대처수상은 “훈련을 받은 지성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말로가 뻘하다”고 주장하면서 과학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설정했다. 영국이 미국에 이

어 노벨상 과학부문에서 많은 수상자를 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카소네는 의원활동의 상당 부분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할당했을 정도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컸던 정치인이다. 오늘 일본의 원자력 기술은 나카소네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나카소네는 수상시절 미·일 핵융합 공동연구협정을 맺는 등 과학기술정책 실현에 열정을 쏟았다.

우리는 어떨까. 박정희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두뇌집단인 KIST(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건설에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했고 과학기술처(현 부)를 만들어 과학기술 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꼽힐 뿐 과학기술 발전에 특별히 힘을 쏟은 정치 지도자가 없다. 올해 김대중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역대 정권 최대치인 정부예산 대비 4.7%(4조9천5백56억원)를 배정할 것이 높이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권 창출을 위한 대선 열기가 한창이다. 누가 되든 우리의 과학기술은 최고 통치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도 정치인 특히 통수권자의 과학기술관에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⑤7

발상의 전환 이광영칼럼 ⑥

과학기술과 정치인



李光榮
(전북대 자연대 초빙교수)